

■ Brief Report

##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원외 파견 수련에 만족하는가?

장경호, 김철환, 서홍관, 박진병

인제의대 가정의학교실

### 서 론

우리 나라에 가정의학이 도입되어 전공의 교육이 시작된지도 20년이 되었다. 가정의학 교육은 의과대학 교육, 전공의 수련과정, 그리고 평생 교육과정의 세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하나인 3년간의 전공의 수련과정은 엄격하게 표준화되어야 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도 가정의학과 수련교과 과정과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이 법적으로 등재되어 있어 그 교육목표와 연차별 교과 과정에 따라 전공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sup>1)</sup>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 중에서 전공의 파견과 관련된 문제도 지적되어 왔다. 즉, 적절한 파견 수련의 전공의 수련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파견과가 많은 경우 본원 가정의학과 지도 전문의가 파견병원의 전공의 수련에 관여하기가 어려워 수련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저자들은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원외 파견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국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3년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으며, 원외파견 수련의 효율성과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을 찾아내어 개선 가능한 부분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방 법

#### 1. 조사 대상 및 시기

조사대상은 1999년 현재 전국의 가정의학과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고있는 가정의학과 전공의 3년차 237명을 대상으로 하여 자신의 과거 2년 간 수련 경험(1년차 및 2년차)을 물었다. 조사기간은 1999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다.

#### 2. 조사 방법

조사방법은 저자들이 작성한 “원외 파견에 대한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2회에 걸쳐 우편으로 각 대상자에게 발송하여 기재하도록 한 후 반송우편을 이용하여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총 33개의 문항으로, 26개 문항은 원외 파견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내용이고 나머지 7문항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인적사항, 소속병원의 규모 및 위치, 지도전문의의 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 3. 분석 방법

회수된 설문지는 조사 대상자 237명 가운데 103명(43.5%)이며 이 중 원외 파견의 경험이 있는 87명(84.5%)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파견기간, 파견과

접수일: 1999. 9. 29. 승인일: 2002. 3. 5.  
교신저자: 김철환(e-mail: fmmother@hitel.net)

장경호 외: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원외 파견 수련에 만족하는가?

별 수련기간, 파견병원의 병상 수, 파견교육에 대한 프로토콜 유무, 파견 시 외래진료 또는 관찰 유무, 파견과의 전문의 수, 파견과외의 일 유무와 차지하는 비율, 응급실 당직 유무와 횟수, 당직실 및 숙소 유무, 월급 수준, 파견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족도 비율을 알아보았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외부 수련 만족도와의 관계

원외파견의 경험이 있는 가정의학과 전공의 87 명 중 3차 의료기관 소속 전공의가 57 명, 종합병원 소속 전공의가 29 명, 병원 소속 전공의가 1 명이었고, 남자가 66 명, 여자가 21 명이였다. 평균 연령은 32.5 (±3.7) 세이었고, 기혼자가 64 명, 미혼자가 23 명이였다. 소속병원, 성별, 결혼유무와 외부 수련 만족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원외 파견기간 및 외부 수련 만족도와의 관계

조사대상자의 2 년간 평균 원외 파견 기간은 6.61 (±4.39) 개월이였다. 원외 파견 기간에 따른 만족도는 3 개월 미만에서는 18 명 중 13 명 (72.2 %)이 만족하고 있으며, 9 개월 이상에서는 22 명 중 14 명 (63.6 %)이 만족하고, 3-8 개월에서는 47 명 중 10 명 (21.3 %)만이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3. 원외 파견병원과 병상 수 및 외부 수련 만족도와의 관계

원외 파견경험이 있는 곳(중복 체크 허용)으로는 종합병원 44 명, 병원 15 명, 기타 14 명, 3차의료기관 12 명, 의원 2 명 순으로 응답했다.

4. 파견과별 수련기간 및 파견의 장점이 가장 많은 과

파견과별 수련기간은 각과별 1-2 개월이 가장 많았으며, 파견의 장점이 가장 많은과는 외과계(정형외과, 일반외과) 40.2 %, 내과계(내과, 소아과) 31.7 %, minor과 20.7 %, 기타 7.3 % 순으로 응답했다.

5. 파견 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 유무 및 외부 수련 만족도와의 관계

87 명 중 69 명 (79.3 %)이 파견 교육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응답했으며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 만족도가 높았다.

6. 파견시 외래진료 또는 관찰 유무

87 명 중 59 명 (67.8 %)가 파견과 외래진료 또는 관찰을 하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28 명 (32.2 %)가 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했다. 외래진료 및 관찰과 만족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7. 파견과의 전문의 수 및 외부 수련 만족도와의 관계

파견과의 전문의가 1 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9 명 (45.3 %), 2 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2 명 (37.2 %), 3 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5 명 (17.4 %)이였다. 파견과의 전문의 수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51 명 (58.6 %),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36 명 (41.4 %)으로 나타났다. 파견과의 전문의 수가 많을수록 외부 수련 만족도가 높았다.

파견과의 교육담당 전문의의 교육내용 및 열의에 대한 만족도는 ‘대단히 만족한다’ 7 명 (8.0 %), ‘만족한다’가 28 명 (32.2 %), ‘만족하지 못한다’가 49 명 (56.3 %), ‘대단히 만족하지 못한다’가 3 명 (3.4 %)으로 응답했다.

8. 파견과 외(外)의 일과 외부 수련 만족도와의 관계

파견 시 파견과 업무 이외의 일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58 명 (66.7 %),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29 명 (33.3 %)으로 나타났으며, 파견과 일을 100으로 보았을 때 타과 일을 30 미만으로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39 명 (52 %), 30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6 명 (48 %)으로 나타났다.

타 과일을 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16 명 (18.8 %)에 비해 ‘만족하지 못한다’가 44 명 (51.8 %), ‘대단히 만족하지 못한다’가 25 명 (29.4 %)으로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9. 파견시 주간 및 야간 응급실 당직 횟수 및 만족도

파견 시 응급실 당직에 대한 만족도는 ‘대단히 만족한다’가 3명(3.9%), ‘만족한다’가 15명(19.5%), ‘만족하지 못한다’가 46명(59.7%), ‘대단히 만족하지 못한다’가 13명(16.9%)으로 응답했다.

10. 월급 및 외부 수련 만족도와의 관계

급여를 0-20 만원을 더 받는 경우가 37명(46.8%), 21-40 만원을 더 받는 경우가 27명(34.2%), 41 만원 이상을 더 받는 경우가 15명(19.0%)으로 응답했으며, 급여에 대한 만족도는 24명(31.2%)이 ‘만족한다’로 53명(68.8%)이 ‘만족하지 못한다’로 응답했다. 본원과 파견 병원의 월급 차이가 적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11. 파견병원에 대한 전체적인 수련 만족도

‘대단히 만족한다’가 5명(5.7%), ‘만족한다’가 34명(39.1%), ‘만족하지 못한다’가 46명(52.9%), ‘대단히 만족하지 못한다’가 2명(2.3%)으로 응답했다.

12. 원외 파견의 경험이 없는 전공의의 원외 파견에 대한 생각

원외 파견의 경험이 없는 16명은 모두 원외 파견을 원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환자 처치에 대한 수기를 직접 시행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므로’, ‘원내 수련에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가 떨어지므로’의 순이었다.

고 찰

지금까지 국내외 가정의학 학술지에 발표된 전공의 교육에 관한 논문들은 주로 1) 임상 경험의 내용을 평가하거나 2) 교육과정(curriculum)에 대해 평가하거나 3) 전반적인 교육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었다.<sup>2)</sup> 즉,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가 시행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비교가 어려웠다.

대체로 파견근무가 수련기간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

는 가정의학과 수련에서는 파견 근무에 대한 평가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각과 파견 근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수련 기관은 많지 않았다. 파견 근무에 대한 평가서의 대부분은 파견과의 교육자에 의해서 작성되고 있고, 파견 나온 전공의의 지식, 임상수기, 태도 및 인성에 대한 면을 평가하고 있다.<sup>3)</sup> 반면에 파견 전공의에 의해서 작성되는 파견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병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파견 전공의에 의한 파견과에 대한 평가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공의 연차별 교과과정을 보면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회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각 연차별로 6개월까지 파견할 수 있다.<sup>4)</sup> 따라서 수련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원외 파견 기간에 따른 만족도를 보았는데 원외 파견기간과 종합적인 외부 수련만족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기간이 3-8개월 이하에서는 파견기간이 길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견기간이 3개월 미만과 9개월 이상에서는 만족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미만에서의 상대적인 만족도 증가는 외부 파견수련의 심각한 문제점에 노출될 기회가 적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9개월 이상에서의 상대적인 만족도 증가는 많은 외부 파견에서 습득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능력의 향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더 연구가 필요하다.

파견 교육에 대한 질병의 경험수준 분류 및 수기의 경험수준 분류기준<sup>5)</sup>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가이드라인(Guideline)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이드라인 유무와 종합적인 외부 수련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보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파견 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전공의 교육의 핵심적인 요소는 가정의학센터의 전공의 외래진료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때 전공의는 지도의사의 감독과 협조 아래서 외래 진료를 보게된다.<sup>6,7)</sup> 대한가정의학회 수련위원회에서는 전공의 1년차는 일 주일에 1반일(half day), 2년차 전공의는 2반일, 3년차 전공의는 3반일 이상의 외래 진료를 권장하고 있다.<sup>8-10)</sup>

본 연구에서 나타난 외래진료 및 관찰 유무에 대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장경호 외: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원외 파견 수련에 만족하는가?

우리 나라에서는 가정의학과 의사가 몇몇 전문과목의 의사들에게는 단순한 경쟁상대로 오인되고 있다.<sup>11)</sup>

이러한 상황에서 파견시 전공의 교육을 담당하는 파견과의 교육담당 전문의의 교육내용 및 열의와 파견과의 전문의 수에 대해 각각의 만족도를 보았는데, 파견과의 전문의 수와 종합적인 외부 수련만족도 사이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파견과의 전문의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따라서 파견병원 선정시 파견과의 전문의 수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파견과 외의 일 유무 및 그 정도도 종합적인 외부 수련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파견과 외의 일을 할 경우와 일의 비율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타전문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련기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짧은 기간동안 내에 파견과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에는 병원 경영을 우선하는 경영진의 시각도 작용하지만, 병원 경영과 상호보완적인 마땅한 수련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sup>3)</sup> 이러한 점은 파견병원의 경영자 및 교육담당 전문의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며 파견 전공의의 이에 대한 자기주장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파견 시 응급실 당직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지 못하다'가 응답자의 76.6 % 차지했다. 이또한 효율적인 수련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응급실 당직문제는 수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월급과 종합적인 외부 수련 만족도 사이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원과 비교하여 더 받는 액수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급 액수가 많을수록 응급실 당직 등 파견과 외의 일이 많아지는데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파견의 장점이 가장 많은 과는 외과계(정형외과, 일반외과) 40.2 %, 내과계(내과, 소아과) 31.7 %, minor과계 20.7 %, 기타 7.3 %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과계열에 파견시 소수술 기법 등 일차의료에서 필요한 수기 습득의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중 원외파견의 경험이 없는 전공의들 모두가 파견을 원하고 있었다. 이는 가정의학과 전공의들의 수련과정 중 원외 파견에 의한 수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가정의학과 전공의 3년차를 대상으로 하여 우편설문의 전체 회수율이 43.5 %에 그쳐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 가정의학과 전공의들의 외부파견에 대한 만족도를 충분히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 조사된 내용에 비교 기준치가 거의 없어서 현상을 기술하는데 머무른 점 등이라 하겠다.

## 참 고 문 헌

1. 보건사회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동 시행규칙 1990.
2. 강운주, 오미경, 이영진. 수련 형태에 따른 가정의학과 전공의들의 수련만족도. 가정의학회지 1992; 13(11):869-77.
3. 송홍지, 윤종률. 전공의 수련의 효율적인 평가방안. 가정의학회지 1998;19(5):384-90.
4. 대한가정의학회. 가정의학과 전공의 기록부 2002.
5. 1998년 대한가정의학회 신입전공의 오리엔테이션. 가정의학과 전공의 교과과정(안).
6. 대한가정의학연구회. 90년대를 위한 가정의학과 전공의 교육과정 1992.
7. ACGME. Special Requirements for Residency Training in Family Practice 1985.
8. Geyman JP, Family Practice: foundation of changing health care 2nd ed. Norwalk: Appleton-Century-Crofts; 1985. p133-50.
9. Hunt VR. 가정의학과 전공의를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제안. 가정의 1980;1(2):1-11.
10. Geyman JP, Cherkin DC, Deisher JB, Gordon MJ, Graduate follow-up in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family practice residency network. J Fam pract 1980;11(5):743-52.
11. 허봉렬. 새로운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제도 모색. 가정의학회지 1998;19(5):7-23.